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망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 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다시말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직제 제자만을 생각해서, 오늘날 목회자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망대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떠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25-27,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용이 어렵습니다. 부모,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수사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적당히 미워하고 살면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령, 어떤 분은 평소에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데, 자식 문제만 생기면 믿음 생활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 문제는 괜찮은데,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어떤 사람도 주님과 관계에서 우선 순위를 빼앗기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혹은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다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 후에 요양원에 계실 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질문했다고 하죠. “한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목사님의 대답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였다고 합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자 했던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며 사는 것’ 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하시고 나서 오늘 “망대의 비유” 와 “군대의 비유” 를 통해 제자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밀고 들어오는 자를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얼핏 보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얼핏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망대를 완성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지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쳐지기도 하죠. 또 이만명의 적군이 쳐 들어올 때에 자기에게 만 명의 군사밖에 없다면 처음부터 싸우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 주신데에는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천년전 당시에 망대(Tower)라는 건,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얘기냐하면 당시 성을 지을 때에 망대는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cctv를 포함한 security system이 잘 되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누가 쳐들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할

수가 없죠! 망대가 반드시 있어야 적군이 오는 걸 미리 보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을 적들로부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망대는 농사 현장에도 꼭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도둑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망대는 지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만명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반드시 그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나가서 싸워야죠.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가는데 가만히 있으실 분이 계십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누가 무조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길 자신이 없어도 말이죠. 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했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은 망대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도적처럼 임하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시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과 깨어있는 생활을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를 예산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은 버릴 것은 버리고, 지고 가야 할 것은 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귀와 명예, 돈과 권력,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리며 살아가라고 축복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앙의 망대를 높이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에스더 왕후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높은 지위를 활용하여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힘차게 펼치는 신앙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만일 신앙의 망대를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거 주장스러운 옷들을 벗어버립니다. 비싼 옷이라고, 입고 뛰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 버릴 것은 과감히 벗어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부적절한 관계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완성하려면 또 감수해야 할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 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신앙의 망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망대는 생각으로만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성경 읽는데 시간을 들여야 해요. 봉사 생활하는데도 시간을 들여야 해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데도 정성을 들여야 해요.

어느 부잣집에서 가든 파티가 벌어졌다고 해요. 뒤뜰에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에는 악어가 한 마리 있었어요. 파티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그 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시집을 가야 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수영장에 들어가 저곳까지 수영을 하고 나온 사람은 우리 딸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느 청년이 수영장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힘을 다하여 수영장 저편까지 수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그 청년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수영장에서 나오자마자 다음과 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떠밀었어?”

어떻게 수영장에 들어갔든지, 악어가 있는 수영장에서 그 청년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수영하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악어한테, ‘이건 내가 수영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게 아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스스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짐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물로 여기고 삼니다. 이미 시작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이 길을 감당해야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까이 항상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망대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도적처럼 임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시험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철저한 준비와 각오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신앙의 망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땀과 수고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감당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